

시론



조영서 주월초등학교 교사

얼마 전 마음을 울려라 한 글을 읽었다. 수학 필즈상을 받은 허준이 교수가 서울대 졸업식에서 한 축사였다. 시인을 꿈꾸며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우연한 기회에 수학의 매력에 빠져 수학자의 길을 가게 된 그의 독특한 인생 여정이 담긴 글이었다. 수학자이지만 여느 수필가 못지않게 담백했고, 수학자였기에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오기도 했다. 자신의 실패와 방황의 사이에서 겪은 경험과 생각을 어찌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 마음에 외닿게 잘 풀어냈을까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이렇듯 좋은 글은 개인을 바꾸고, 더 나아가 사회와 역사를 바꾼다. 인류는 고대로부터 기록을 통해 발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점판에 기록했다. 후손들은 그것을 읽고 받아들이고, 생각을 발전시켜 또다른 점판에 그것을 기록했다. 비단 지혜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록했던 감정과 상상력은 수필과 소설이 돼 우리의 영감을 자극하고 삶을 살아갈 원동력을 주기도 한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글쓰기를 통해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복잡한 개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전달하거나, 타인을 설득하기도 한다. 즉, 우리는 글쓰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나 필자가 쓴 글을 돌아보니, 갈 길이 멀을 느낀다.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을지, 내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늘 고민이 든다.

이는 필자뿐만 아니라, 성인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글쓰기가 어려운 지경을 넘어 두려움까지 되기도 한다. 알고 있는 것도 글로 쓰라고 하면 도무지 생각이 안난다는 아이들이 많고 특히나, 자신의 글쓰기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려움과 두려움의 정도는 더욱 커진다. 그렇기에, 체계적인 글쓰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글쓰기에 대한 공포와 어려움의 해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글쓰기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아이들로 하여금 육하 원칙과 서론-본론-결론을 갖춘, 그럴 듯한 형식을 가진 글을 쓰는 것만이 글쓰기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140자의 미학'이라고 하던가. SNS의 글 하나를 작성하면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할 수 있고, 메신저로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수많은 반응을 가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글쓰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러한 활동과 글쓰기를 구분해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에게 친숙한 소재와 방식을 활용하여 글쓰기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경험한 일을 학급 소통망 등에 사진과 그에 어울리는 음악과 함께 글쓰기를 써내려 간다면 과정도 결과물도 훨씬 풍성한 글쓰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브레인 스토밍 및 마인드맵은 글쓰기만큼이나 중요하다. 자유로이 생각을 쏟아내고, 그것을 연결시키거나 주제별로 유목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추후 글의 구조를 잡는 연습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다른 친구들과 협력하여 글을 작성하는 것도 좋다.

두 번째, 쓴 글에 대해선 되도록 피드백을 주고받도록 교육을 설계해야 한다. 앞서 글쓰기의 본질은 의사소통임을 강조한 바 있다. 글을 썼다면, 내가 의도한대로 상대방이 읽고 이해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고쳐 써야 한다. 글쓰기에 친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이 과정이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드백 단계에서 교사는 앞서와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줘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피드백이 실제로 아이들의 글을 더 낫게 만들었음을 아이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것이다. 간혹 피드백을 마지정답과 오답을 가리는 것처럼,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지적하고 거기서 그치고 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피드백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후속 조치에 더 큰 비중이 적혀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글 쓰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그러나 너무 잘 쓰려 하지 말고 그냥 써보라고. 한 번에 완성되는 것만이 글은 아니다. 쓰고 또 쓰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써보는 것도 다 글이고, 글쓰기다. 고쳐쓰는 과정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같은 내용도 언제든 상황에 맞게 고쳐 쓸 수 있다. 그렇기에, 부담 갖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그냥 써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 결과, 너희들의 구불구불한 글이 더 없이 마땅하게 딱 맞는 글이 되어 있을 테니. 어려워 말고 두려워 말고, 우선 뭐든 쓰길 바란다.

社說

주민과 소통 부족 광주 남구의회 반성하고 혁신해야

광주 남구의회가 주민과의 소통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데 공을 들이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팔짱을 끼고 있다. 실제로 남구의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6,7월에 오픈해 현재까지 게시글만 8건에 그쳤다.

반면 2022년 11월 가장 먼저 라이브 송출을 시작한 북구의회는 상임위, 특별위원회 등 33건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지난해는 162건, 올해 현재는 73건이다. 동구의회는 지난해 82건, 올해 97건을 생중계했다. 또 북구의회는 2022년부터 소셜미디어(SNS) 운영에 나서 게시물이 모두 601건에 달하고, 같은 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광산구의회도 622건에 이른다. 지난해 SNS 계정을 연 동구의회와 서구의회의 게시물은 704건, 313건으로 파악됐다.

남구의회의 지나친 무성의에 주민들은 해도 너무하다며 쓴소리를 내고 있다. SNS가 더 이상 생소하지 않고 일반인에 익숙하며 1인 방송 시대가 열렸으나 시대적 흐름을 외면, 의지가 없다고 꼬집는다. 해서 뒤늦게 유튜브 채널을 개

설, 업로드를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일시적 모면만을 위한 해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직접 선거로 선출된 지방의회다. 의원들이 자신의 활동을 알릴 매체가 한 두가지가 아니고 방법이 쉬운데도 지극히 당연한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결국 기본권인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도 '감투싸움'으로 파행이 거듭된 바 있고, 이로 인해 여름 휴가철과 겹치는 이달 말에 집행부 업무 보고가 진행되는 일정으로 반발을 샀다. 공무원들이 '갑질 규탄 결의대회'를 여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변경 요청을 수용했으나 역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대로라면 주민과 신뢰마저 끝내 무너지게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 의식을 느껴야 한다. 의원들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 피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구의회의 강력한 혁신을 재차 촉구한다.

중소기업과 청년 동반성장 광주시 지원 의지 중요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과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30번째 월요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찾아 광주를 떠나는 청년과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듣고 실질 해법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청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성장', '미래', '고향 정주', '혁신', '첫 경력', '실과 바늘' 등 여러가지 답을 내놨다. 청년들은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 임금, 복지, 회사 비전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이야기하면서 정보와 경험 부족 등을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청년 고용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반면, 광주·전남의 사정은 다른 양상이다. 고용·실업률 지표도 외형적으로 양호하지만 청년층은 취약한 수준이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긴 노동시간 등으로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은 우수 인력 모집에 공들이고 있으나 한계를 실감한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급하다고 하

였다. 중소기업은 급여·복지 향상 등을 위한 재원 마련에 애로가 큰 가운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전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워라밸을 위해 유연근무제, 자기발전 기회 등을 제공하자 청년 지원자가 늘어났다는 사례를 들려줬다. 좋은 인재가 갈 수 있도록 좋은 직장을 알리기 위한 홍보와 더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꺼냈다.

월요대화는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광주시는 더 다양한 주제로, 더 많은 시민을 만나, 더 깊은 대화를 통해 그동안 행정에서 듣지 못했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더 분발해야 한다. 광주시는 청년 누구나 교육받고 일하고 살고 싶도록 86개 사업, 2천58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청년이 머무르는 광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 명의 청년이라도 불잡는다는 절박한 인식을 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다.

기고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

'조사 기한 연장'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시급

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은 첫째, 진상 규명의 범위 확대와 깊이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식 명칭에서 명시돼 있던 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이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 위원회의 활동은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보다는 희생자 명예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희생자 개개인의 진상 규명 활동마저도 신고인에 제한적으로 이뤄져 있다. 여순사건의 실제적 진상 규명을 통해 역사적 왜곡에서 벗어나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희생자의 명예 회복도 함께 이뤄질 것이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현재 신고된 7천465건의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과 기념사업의 강화다. 여순사건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사건이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정부 수립 초기에 '반공' 만을 외치던 이념 교육으로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로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 교육 과정에 여순사건을 포함시키고 '찾아가는 여순사건'으로 우리 지역을 벗어나 전국에 있는 학교로 찾아가야 한다. 또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국민이 여순사건을 제대로 기억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후세대에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진상 규명 조사 과정의 신뢰성 확보다. 여순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되거나 훼손됐다. 현장에서 면담 조사하는 조사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1960-1970년대 연좌제의 피해에서 벗어나고 자 희생자·유족들이 사진, 일기장, 철도원 복장, 메모장 등 모든 증거를 잃었다고 한다. 지금 남아 있는 대다수 자료는 군대, 경찰서 등 진압 군 경의 자료들이다. 따라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희생자·유족 중심의 자료도 최대한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차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사 기한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와 치유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여순사건의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위로를 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사 기한이 도래하는 현 시점에서 연장을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당면 과제다. 조사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진상 규명과 역사적 자료 확보를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후세대에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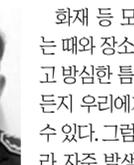
이제 국회와 정부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과 조사 기한 연장을 통해 희생자·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할 때다. 11대 국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여순 나무'를 심었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여순 나무'가 잘 자라도록 수분도 공급하고 제초도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여순 나무'는 잘 자라 여순사건이 일어난 10월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진실의 열매를 제 공하게 될 것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등 전남·전북·경남 일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중요한 비극적 사건 중 하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후 많은 이들이 불이익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역사적 비극을 치유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21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조사 기한인 2024년 10월5일이 곧 도래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사 기한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은 시급한 당면 과제다. 이번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자 국회의원, 유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주철현 국회의원)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에 유족,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독자투고



화재 등 모든 안전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틈을 타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때때 따라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있으므로 알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온이 상승하고 잦은 비로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에는 정화조, 맨홀,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주의보'

생 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식 재해의 주요 발생 원인은 안전조치 소홀, 질식 위험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따른 인식 부족, 반복적인 작업에 따른 안전작업수칙 무시 등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결핍위험 및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에는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며, 불기능할 때는 작

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를 지급해 착용토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공사 관리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 근로자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자.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밀폐공간 등 각종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에 유념해야 한다.

〈한선근·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집값 가파르는데...국내 거주용 부동산 가격 상승률 59개국 중 48위

국내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주거용 부동산 가격지수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42.9(2010년=100)로 집계됐다. 집값이 2010년과 비교해 42.9% 올랐다는 의미다.

이는 BIS 자료에 포함된 59개국 중 48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계 평균인 190.2는 물론이고 선진국 평균(178.2)이나 개발도상국 평균(202.6)보다 한참 낮았다. 한국의 명목 가격지수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3분기 121.7을 기록한 뒤 가파르게 상승해 2022년 3분기 말 154.1까지 치솟았다.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올해 1분기 말(142.5)까지 6분기 연속 내렸다. 1분기 말 수치는 23개국만 집계된 상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주거용 부동산 가격지수의 경우도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말 103.9으로, 59개국 중 43위에 그쳤다.

세계 평균(123.0)을 비롯해 선진국 평균(132.3)과 개도국 평균(115.8)보다 낮았다. 이 실질 가격지수는 지난 2017년 1분기 말 103.7로 바닥을 찍고 반등해 2021년 4분기 말 126.1까지 올랐다가 차츰 하락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통화 완화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률보다 크게 뒀 결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동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부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 101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